황금 들녘

18일 강진군 도암면 옥전마을의 조기벼 생산단지 들판에서 한 농민이 기온이 35도를 넘는 무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찰벼를 수확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거점고 육성 해법은 '강진고 개축'

추진위 결정… 통폐합 아닌 자연흡수방식
학업 지장 없고 지역상권 위축 안되게

강진고거점고추진위원회(이하 거점고추진위)는 최근 회의를 갖고〈사진〉 거점고 지정을 위해 강진고를 개축하기로 결정했다. 거점고추진위는 또 성전고와 병영정보고가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 조만간 폐교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통폐합보다는 강진고의 거점고 지정을 통한 자연 흡수 방식으로 관내 고등학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성전고, 병영정보고 등과의 통폐합 후 강진고를 거점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남도교육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거점고추진위는 "지난 14일 2차 회의를 갖고 강진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강진고를 개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군의원, 9개 사회단체장, 학교장, 언론인 및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재정 거점고추진위원장은 "강진군과 지역민들이 공교육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추진위원은 물론 강진교육지원청에서 강진군과 잘 협의해 거점고 육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통폐합 없이 강진고를 거점고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사항 설명, 거점고 육성 추진방향 논의, 지역교육청의 역할 분담, 안건 결정 순으로 진행됐다.

거점고 지정과 관련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역상권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식 총무과장은 "공교육이 살아야 학생들이 경제 상태와 무관하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우리 군에 거점고를 육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배움의 터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다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달 강진고 거점고 지정 건의를 위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면담한 자리에서 강진군민들의 거점고 지정·육성에 대한 염원을 담은 '거점고 육성 촉구 강진군민 서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장 도교육감은 "강진군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립 강진성요셉여고(363명)가 올해 폐교를 신청함으로써 내년부터 강진지역에는 강진고(389명), 성전고(72명), 병영정보고(66명), 특목고 강진마이스터고(전 강진농고, 392명) 등 공립고 4곳만 남게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화순군 전지훈련 메카로 명성"

축구·복싱·배드민턴 등 840명 찾아… 경제효과 10억

화순군은 18일 "올 여름 하계 전지훈련에 나선 축구를 비롯한 배드민턴, 복싱 등 3종목 선수단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화순에서 하계전지훈련을 마친 선수단 규모는 모두 840명으로, 군은 이들이 7~21일간 지역에 머물면서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개의 축구팀 600명이 7일간, 3개의 배드민턴팀 160명이 21일간, 80명의 복싱 선수단이 10일간 각각 화순에서 전지훈련을 가졌다.

군은 이들 선수단 규모를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1만31명으로, 한국은행의 '관광지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계수'를 적용한 결과 10억1500만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미쳤다고 주장했다.

화순지역이 전지 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군은 전국 최고 체육 인프라 시설과 온화한 기후 조건을 바탕으로 각종 운동 시설과 숙박시설이 집적해 있으며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전국단위대회 가운데 지역여건에 맞은 종목을 선별해 유치할 계획"이라며 "군정의 역점시책인 관광객 연 300만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니움체육관을 비롯한 우수한 체육 인프라 시설물 활용을 통한 마케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필암서원 유네스코 등재 기원

내일 순천대 청년학생 포럼

순천대 학생들이 오는 20일 오후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필암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청년학생 포럼'(이하 청년학생 포럼)을 개최한다.

순천대 건축학부, 사학과, 철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청년학생 포럼에서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문과 사상, 역사적 가치들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와 토론의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 학생들은 지난 5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로 위촉돼 문화재여방관리센터가 주관하는 3박4일 캠프에 참가하는 등 활동해왔다.

장성의 필암서원은 경북의 소수서원 등 전국 8개 대표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에 포함돼 있다.

군 관계자는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대학생들이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잠정목록에 포함된 필암서원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부안 감자·수박·양파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쑥쑥'

올 412억원 소득… 작년보다 두배 증가

부안의 감자와 수박, 양파가 농가들의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18일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감자와 수박, 양파 재배를 통해 총 412억원의 소득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272억원 보다 140억원(52%)나 증가한 규모다.

작목별로는 감자의 경우 329농가가 401ha의 면적에서 9376t을 생산해 전년도 113억원 보다 16억원(14%)이 늘어난 129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해풍양파는 848농가가 361ha 규모의 면적에서 2만7075t을 생산, 175억원의 소득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91억원 보다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또 명품수박의 경우 150ha 면적에서 7200t이 생산돼 지난해 68억원보다 40억원이 늘어난 108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러한 특화작목의 소득 증대는 작목재배에 적합한 기후상황이 유지돼 고품질 생산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농가교육과 홍보마케팅 등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이 같은 작목 재배 및 소득 분석을 토대로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감자와 관련 비닐하우스 185동 지원사업을 오는 11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양파는 이달 중 해풍양파단지 추진협의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1억2000만원 상당의 종자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박 역시 명품수박단지 지원사업을 위한 농가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재배 및 유통방법 등 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오디뽕에 이은 고소득 작목으로 감자와 수박, 양파가 급성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고품질 작목 생산을 위한 각종 교육은 물론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 농어촌지역 최고 소득도시 만들기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

전북

'한 여름 밤의 소리여행'

지난 17일 남원시가 여름 피서객을 위해 마련한 '한 여름 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에서 시립국악단이 장구춤을 추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 동안 오후 8시 사랑의 광장에서 개최되는 '한 여름 밤의 소리여행'에는 매회 1000명이 넘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전북 서해안에 최신 경비함정 배치

전북 서해안에 300t급 최신 경비함정이 배치된다.〈사진〉

군산해양경찰서는 18일 "최신예 경비함 322함이 건조 과정과 승조원 교육, 시운전을 모두 마치는 8월말께 군산 앞바다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예산 157억원이 투입된 322함은 전장 58m·전폭 8.5m 규모로 3648마력 엔진 4대와 워터제트 4기가 장착됐다.

최대 35노트(시속 65㎞)로 항해가 가능하며 15노트로 순항시 2000마일을 항해할 수 있다. 전면에 20㎜ 벌컨포 1문과 후면에 50중기 기관포가 장착됐고 10인승 고속단정, 야간 열상 감지카메라도 갖춰졌다. 이 경비정에는 고압가속분출원리를 이용한 워터제트 추진 방식이 도입돼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

전북 유턴기업 유치 안간힘

세금 감면·산업단지 우선 입주 등 혜택

전북도가 중국 등 해외 진출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18일 전북도와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소재 주얼리기업이 익산으로 집단 유턴(U-turn)한 데 이어 7월말 기계와 주얼리, 섬유업종 6개사가 익산·군산으로 추가 이전을 결정했다.

이로써 주얼리 23개사, 기계 2개사, 섬유 1개사 등 26개 기업이 전북에 새 둥지를 틀게 됐다.

유턴이 진행 중인 전국 8개 지자체 41개 기업 중 26개사가 전북지역에 자리를 잡는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해외에 진출했으나 노동비용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로 다시 국내 복귀를 선언했다.

전북도는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 등 입지 여건을 앞세워 유턴기업을 공략하고 있다. 도는 ▲ 20명당 초과 1인당 600만원씩 고용보조금 지급 ▲ 입지투자금액의 20% 선도기업 특별입지보조금 지급 ▲ 소규모 집단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책을 내걸었다.

유턴기업에 세금감면이나 산업단지 우선입주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정작 기업인들은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턴기업인들은 지난 13일 익산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산업통상위원회 의원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통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남원시보건소, 임산부에 엽산제 무료 보급

남원시보건소는 임신이 확인된 모든 임산부에게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를 무료로 보급한다.

태아의 중추신경계는 수정 후 4주 이내에 형성되는데 모체의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관 결손증으로 유(사)산 또는 선천성 기형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엽산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좋다.

또 보건소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상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기형아검사, 철분제보급, 출산지원금·산후조리지원금 등 다양한 산모 지원책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모유수유실(063-620-7955)을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주한옥마을 금연거리 지정… 9월부터 과태료

9월부터 전주 한옥마을 주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올해 5월 한옥마을 주요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전주시는 18일 "이달까지 계도와 홍보를 거쳐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고 불쾌감을 주는 길거리 금연을 막기 위해 연간 400여만명이 찾는 한옥마을 은행로 0.7㎞와 태조로 0.6㎞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으로, 전주지역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돼 과태료를 내는 곳은 한옥마을이 처음이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전북과학대, 앱·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전북과학대와 정읍시는 정읍을 널리 알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9월13일까지 공모한다.

대상은 정읍의 관광 자원과 문화, 축제, 농특산물이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작에는 최고 5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문의는 정읍시청 관광산업과(063-539-5201~3)나 전북과학대 정보전산원(063-530-9218)으로 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참신한 군민제안 공모… 군정 반영

순창군이 순창을 발전시킬 군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군은 18일 "군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3년도 하반기 군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클린·그린 순창 만들기, 농촌개발, 인구증대, 관광산업 육성, 생활공감 정책 등 군정 모든 분야이며, 9월5일까지 군청 기획실이나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 공익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등을 심사, 채택된 제안은 모두 군정에 반영하고 우수 제안은 소정의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